

2022년 상반기 경남지역 고용동향

2022. 8

창원상공회의소

I. 조사개요

1. 조사목적

- 본 조사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한 경남지역 사업장과 근로자의 규모별, 업종별 고용동향과 퇴직 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 지역의 고용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조사방법

-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를 활용한 분석
 - 고용보험DB는 고용보험 전산망 운영을 통해 축적된 행정 데이터로써 고용정책 수립, 평가 및 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신속하고 세분화된 분석에 활용하기 용이함.
 - 고용보험DB 법적근거
 - 통계법 제18조(통계작성의 승인)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(고용보험통계: 승인번호 제327002호)
 - 피보험자의 포괄범위
 -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 ‘상용’, ‘계약직’인 근로자 단,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(주15시간) 미만인 자, 국가·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되지 않음
 - 고용보험DB 이용 시 유의사항
 - 분기 중 최신 월의 통계는 잠정치 통계이며, 익월 발표시 확정치로 대체됨
 - 고용보험DB는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수행정자료이며, 포괄하지 않은 부분(자영업자, 미가입자,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, 비경제활동인구 등)이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
 - 서비스업은 일용근로자 비중이 대체로 높아 전체 동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

3. 조사기간

2022년 8월 3일 ~ 8월 5일

4. 조사사항

-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(규모별, 업종별)
-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수
-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수(규모별, 업종별)
- 고용보험 상실자의 재취득 경로(지역별, 업종별)

II. 요약 및 시사점

- 2022년 상반기 경남의 제조업 근로자 수가 33만 1,0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.8%,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42만 2,094명으로 3.0% 늘어 전체 근로자 수는 81만 378명으로 2.2% 증가했음.

제조업 근로자 수의 증가를 이끈 업종은 '식료품'+(7.6%), '전기장비'+(6.1%), '금속가공제품'+(4.3%), '전자부품'+(2.3%), '기계 및 장비'+(1.6%) 등임.

서비스업의 경우 '숙박 및 음식점'+(8.0%), '예술·스포츠 및 여가'+(7.7%)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에 영향을 크게 받았던 업종들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전체 서비스업 근로자 증가를 견인했음.

-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이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한 제조업 직종별 근로자 수 변화를 보면, '부서장 이상 관리직'은 2019년 상반기 대비 5.9% 감소한 반면 '사무직원'은 0.4% 증가했음. 한편 '연구직'의 경우 159.9%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음.

반면 전체 근로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'생산직'과 '단순노무직'의 근로자 수는 각각 4.8%, 1.8% 감소했음.

이러한 제조업의 직종별 근로자 수 추이는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추진과 코로나19를 겪으면서, 재산성 향상과 R&D를 통한 부가가치 극대화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 제조기업들의 고용구조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함.

- 2022년 상반기 경남 근로자 수 (2021년 상반기 대비)

- 전체 근로자 수 : 81만 378명(▲2.2%)

- 제조업 : 33만 1,041명(▲0.8%) _ 전기장비(▲6.1%), 금속가공(▲4.3%)
- 서비스업 : 42만 2,094명(▲3.0%) _ 숙박·음식(▲8.0%), 예술·스포츠(▲7.7%)
- 건설업 : 4만 952명(▲4.6%)
- 기타 : 1만 6,291명(▲3.0%)

- 2022년 상반기(누적) 취업·퇴직자 수 (2021년 상반기 대비)

- 전체 취업자 수 : 23만 4,125명(▲3.2%)

- 제조업 : 6만 8,671명(▼3.4%) - 서비스업 : 14만 7,707명(▲7.3%)

- 전체 퇴직자 수 : 21만 9,786명(▲4.8%)

- 제조업 : 6만 6,685명(▼0.9%) - 서비스업 : 13만 5,698명(▲8.6%)

Ⅲ. 경상남도 고용 동향

1. 경상남도 근로자 및 사업장 수 현황

1) 경상남도 규모별 근로자 수 현황

○ 2022년 상반기 말 기준 경남지역 고용보험¹⁾에 가입한 상시근로자(고용보험 피보험자, 일용직 근로자 제외) 수는 81만 378명임.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만 7,112명(+2.2%) 증가한 수임.

규모별로 상시 근로자 수 '10인 미만 사업장'이 22만 9,70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.1% 증가했고, '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' 32만 2,146명(+3.7%), '100인 이상 300인 미만' 10만 3,019명(-1.0%), '300인 이상' 15만 5,510명(+1.2%)임.

경남 규모별 근로자 수

(단위 : 명)

	2018 상	2019 상	2020 상	2021 상	2022 상
경상남도	737,661 (-0.8%)	767,905 (4.1%)	776,976 (1.2%)	793,266 (2.1%)	810,378 (2.2%)
10인 미만	201,660 (1.1%)	213,691 (6.0%)	219,103 (2.5%)	224,921 (2.7%)	229,703 (2.1%)
10인 이상 100인 미만	293,468 (-1.1%)	301,097 (2.6%)	303,385 (0.8%)	310,542 (2.4%)	322,146 (3.7%)
100인 이상 300인 미만	109,557 (-2.3%)	105,661 (-3.6%)	101,680 (-3.8%)	104,079 (2.4%)	103,019 (-1.0%)
300인 이상	132,976 (-1.5%)	147,456 (10.9%)	152,808 (3.6%)	153,724 (0.6%)	155,510 (1.2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반기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※ ()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

1)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(고용보험법 제8조, 10조 및 령 제2조, 제3조)

-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(단,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)
-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
-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, 단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에 가입할 수 있음.
-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
-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
- 외국인근로자(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가진자 중 보험가입신청자,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자는 제외)

2) 경상남도 업종(대분류·중분류)별 근로자 수

- 업종별(대분류) 근로자 수 동향을 살펴보면, 2022년 상반기 말 경남 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.2% 증가한 가운데 제조업 근로자 수는 0.8% 증가한 33만 1,041명,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3.0% 증가한 42만 2,094명으로 3.0% 증가했음. 건설업 근로자 수는 4만 95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.6% 늘었음.
- 상반기 말 기준 제조업 근로자 수가 증가를 보인 것은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전인 2019년 상반기 이후 처음임.

경상남도 업종별 근로자 수 동향

(단위 : 명, %)

	2018 상	2019 상	2020 상	2021 상	2022 상
경상남도	737,661 (-0.8%)	767,905 (4.1%)	776,976 (1.2%)	793,266 (2.1%)	810,378 (2.2%)
제조업	334,078 (-4.9%)	335,760 (0.5%)	329,150 (-2.0%)	328,516 (-0.2%)	331,041 (0.8%)
서비스업	352,866 (3.5%)	380,473 (7.8%)	395,278 (3.9%)	409,751 (3.7%)	422,094 (3.0%)
건설업	36,835 (-0.9%)	36,902 (0.2%)	37,645 (2.0%)	39,145 (4.0%)	40,952 (4.6%)
기타	13,882 (-0.6%)	14,770 (6.4%)	14,903 (0.9%)	15,854 (6.4%)	16,291 (2.8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연(年)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※ ()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

※ 서비스업은 '도매 및 소매업', '운수 및 창고업', '숙박 및 음식점업', '정보통신업', '금융 및 보험업', '부동산업', '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', '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', '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', '교육 서비스업', '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', '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', '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'을 포함하고 있으며, 기타는 '농업, 임업 및 어업', '광업', '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', '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', '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', '국제 및 외국기관'을 포함함.

- 경남 제조업의 업종별 근로자 수는 ‘기계 및 장비’ 6만 4,092명, ‘기타 운송장비’ 5만 8,817명, ‘자동차 및 트레일러’ 3만 4,726명, ‘금속가공제품’ 3만 5,954명, ‘전기장비’ 2만 7,617명 등임.

경남 제조업 업종별 근로자 수 동향

(단위 : 명)

	2018 상	2019 상	2020 상	2021 상	2022 상
제조업	334,078 (-4.9%)	335,760 (0.5%)	329,150 (-2.0%)	328,516 (-0.2%)	331,041 (0.8%)
기계 및 장비	64,701 (1.2%)	64,719 (0.0%)	63,364 (-2.1%)	63,053 (-0.5%)	64,092 (1.6%)
기타 운송장비	66,428 (-19.1%)	69,722 (5.0%)	68,620 (-1.6%)	61,568 (-10.3%)	58,817 (-4.5%)
자동차 및 트레일러	35,587 (-3.4%)	34,929 (-1.8%)	33,264 (-4.8%)	34,851 (4.8%)	34,726 (-0.4%)
금속가공제품 (기계 및 가구 제외)	34,699 (-1.0%)	34,876 (0.5%)	34,392 (-1.4%)	34,480 (0.3%)	35,954 (4.3%)
전기장비	21,718 (-2.4%)	21,854 (0.6%)	24,134 (10.4%)	26,022 (7.8%)	27,617 (6.1%)
고무 및 플라스틱제품	23,183 (-5.5%)	22,748 (-1.9%)	21,189 (-6.9%)	21,602 (1.9%)	21,238 (-1.7%)
식료품	15,264 (2.8%)	15,704 (2.9%)	15,393 (-2.0%)	16,010 (4.0%)	17,223 (7.6%)
1차 금속	16,761 (-3.2%)	15,918 (-5.0%)	14,288 (-10.2%)	14,133 (-1.1%)	14,293 (1.1%)
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	9,605 (2.2%)	9,879 (2.9%)	9,840 (-0.4%)	10,652 (8.3%)	10,892 (2.3%)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(의약품 제외)	9,204 (-0.8%)	9,137 (-0.7%)	8,912 (-2.5%)	9,145 (2.6%)	9,060 (-0.9%)
비금속 광물제품	7,472 (-0.4%)	7,045 (-5.7%)	6,716 (-4.7%)	6,771 (0.8%)	6,819 (0.7%)
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	5,617 (2.0%)	5,602 (-0.3%)	5,692 (1.6%)	5,915 (3.9%)	5,585 (-5.6%)
섬유제품 (의복제외)	5,328 (-1.7%)	5,267 (-1.1%)	5,187 (-1.5%)	5,449 (5.1%)	5,532 (1.5%)
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	4,059 (3.3%)	3,920 (-3.4%)	3,978 (1.5%)	4,071 (2.3%)	4,068 (-0.1%)
기타제품	14,452 (7.2%)	14,440 (-0.1%)	14,181 (-1.8%)	14,794 (4.3%)	15,125 (2.2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* 연(年)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* ()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

* 기타제품 제조업에는 목재 및 나무제품, 가죽·가방 및 신발, 음료, 가구, 의복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, 담배, 코크스·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을 포함.

- 업종별 근로자 수 증감을 보면, ‘식료품’(+7.6%), ‘전기장비’(+6.1%), ‘금속가공 제품’(+4.3%), ‘전자부품’(+2.3%), ‘기계 및 장비’(+1.6%), ‘섬유제품’(+1.5%), ‘비금속 광물제품’(+0.6%) 등의 제조업은 근로자 수 증가를 보였음. 반면 ‘의료·정밀·광학 기기’(-5.6%), ‘기타 운송장비’(-4.5%), ‘고무 및 플라스틱’(-1.7%), ‘화학물질 및 제품’(-0.9%), ‘자동차 및 트레일러’(-0.4%) 등의 제조업 근로자 수는 감소를 보였음.
- 2022년 상반기 제조업의 직종별 근로자 수 변화를 보면, ‘부서장 이상 관리직’과 ‘사무직원’이 전년 대비 각각 0.8%, 1.0% 증가했지만,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해서는 ‘부서장 이상 관리직’은 5.9% 감소했고, ‘사무직원’의 경우 0.4% 증가했음. ‘연구직’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1.6% 늘었으며,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해서는 159.9%로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임. 반면, ‘생산직(전문·숙련인력 포함)’과 ‘단순노무직’의 경우에는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해 각각 4.8%, 1.8% 감소했음.

경남 제조업 직종별 근로자 수 동향

(단위 : 명)

제조업 직종	'19. 6	'20. 6	'21. 6	'22. 6	'21. 6 대비	'19. 6 대비
전체	335,760 (100.0%)	329,150 (100.0%)	328,516 (100.0%)	331,041 (100.0%)	0.8%	-1.4%
부서장 이상 관리직	29,569 (8.8%)	28,290 (8.6%)	27,611 (8.4%)	27,819 (8.4%)	0.8%	-5.9%
사무직원	63,472 (18.9%)	63,173 (19.2%)	63,072 (19.2%)	63,702 (19.2%)	1.0%	0.4%
생산직 (전문·숙련 포함)	113,108 (33.7%)	111,392 (33.8%)	108,949 (33.2%)	107,728 (32.5%)	-1.1%	-4.8%
단순노무직	116,913 (34.8%)	111,970 (34.0%)	113,234 (34.5%)	114,794 (34.7%)	1.4%	-1.8%
연구직	2,422 (0.7%)	3,863 (1.2%)	5,176 (1.6%)	6,294 (1.9%)	21.6%	159.9%
영업, 판매	6,828 (2.0%)	6,739 (2.0%)	6,618 (2.0%)	6,752 (2.0%)	2.0%	-1.1%
기타	3,448 (1.0%)	3,723 (1.1%)	3,856 (1.2%)	3,952 (1.2%)	2.5%	14.6%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연(年)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※ ()는 전체 근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

3. 경상남도 서비스업 근로자 수 현황

- 2022년 상반기 말 경남 전체 근로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는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.0% 증가한 42만 2,094명을 기록했다. 업종별로 ‘보건업 및 사회복지’가 12만 5,162명으로 가장 많고, ‘도매 및 소매’ 4만 8,838명, ‘전문·과학 및 기술’ 3만 6,761명, ‘교육’ 3만 963명, ‘부동산’ 2만 8,487명, ‘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’ 2만 6,023명 등임.

경남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근로자 수 추이

(단위 : 명, %)

	2018 상	2019 상	2020 상	2021 상	2022 상
서비스업	352,866 (3.5%)	380,474 (7.8%)	395,278 (3.9%)	409,751 (3.7%)	422,094 (3.0%)
보건업 및 사회복지	94,133 (4.4%)	103,889 (10.4%)	111,487 (7.3%)	118,416 (6.2%)	125,162 (5.7%)
도매 및 소매	42,588 (3.8%)	44,311 (4.0%)	45,707 (3.2%)	47,341 (3.6%)	48,838 (3.2%)
전문, 과학 및 기술	31,452 (0.3%)	32,516 (3.4%)	34,005 (4.6%)	35,771 (5.2%)	36,761 (2.8%)
교육	23,972 (2.8%)	27,097 (13.0%)	28,315 (4.5%)	29,746 (5.1%)	30,963 (4.1%)
숙박 및 음식점	22,271 (10.0%)	25,929 (16.4%)	26,797 (3.3%)	26,621 (-0.7%)	28,763 (8.0%)
부동산	24,843 (8.2%)	26,843 (8.1%)	28,459 (6.0%)	28,931 (1.7%)	28,487 (-1.5%)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19,062 (13.9%)	22,216 (16.5%)	25,318 (14.0%)	26,906 (6.3%)	26,023 (-3.3%)
사업시설 관리, 사업 자원 및 임대	25,933 (0.6%)	25,579 (-1.4%)	24,615 (-3.8%)	25,816 (4.9%)	26,632 (3.2%)
운수 및 창고	25,856 (-3.1%)	27,145 (5.0%)	25,454 (-6.2%)	24,456 (-3.9%)	24,038 (-1.7%)
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	15,703 (-2.3%)	16,549 (5.4%)	16,958 (2.5%)	17,378 (2.5%)	17,158 (-1.3%)
금융 및 보험	15,477 (1.2%)	15,870 (2.5%)	15,857 (-0.1%)	15,634 (-1.4%)	15,672 (0.2%)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	6,832 (3.6%)	7,492 (9.7%)	7,186 (-4.1%)	7,212 (0.4%)	7,769 (7.7%)
정보통신업	4,744 (4.3%)	5,037 (6.2%)	5,120 (1.6%)	5,523 (7.9%)	5,828 (5.5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연(年)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※ ()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

- 근로자 수 증가가 두드러진 서비스 업종은 ‘숙박 및 음식점’(+8.0%), ‘예술·스포츠 및 여가’(+7.7%)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업황 개선이 이루어진 업종들임. 이 밖에도 근로자 수 비중이 높은 ‘보건업 및 사회복지’(+5.7%), ‘교육’(+4.1%), ‘사업시설 관리·사업지원 및 임대’(+3.2%), ‘전문·과학 및 기술’(+2.8%) 등의 서비스업이 증가했고,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업종인 ‘정보통신업’(+5.5%)의 근로자 수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음. 반면 ‘공공행정·사회보장·행정’(-3.3%), ‘운수 및 창고’(-1.7%), ‘부동산’(-1.5%), ‘협회 및 단체’(-1.3%) 등의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감소한 모습을 보임.

4. 경상남도 근로자 취업 및 퇴직 현황

- 2022년 상반기(누적) 취업자 수는 23만 4,12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.2% 증가했음. 이 중 제조업 취업자 수는 6만 8,67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.4% 감소했고,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4만 7,707명으로 7.3% 증가했음.

업종별 취업 및 퇴직자 수

(단위 : 명, %)

	2018 상	2019 상	2020 상	2021 상	2022 상
취업	208,650 (-1.6%)	222,092 (6.4%)	205,276 (-7.6%)	226,889 (10.5%)	234,125 (3.2%)
제조업	74,557 (-12.4%)	69,145 (-7.3%)	61,676 (-10.8%)	71,118 (15.3%)	68,671 (-3.4%)
서비스업	119,409 (7.1%)	136,966 (14.7%)	128,296 (-6.3%)	137,722 (7.3%)	147,707 (7.3%)
경력	186,599 (-1.5%)	196,447 (5.3%)	181,359 (-7.7%)	200,829 (10.7%)	208,259 (3.7%)
제조업	68,465 (-11.7%)	62,736 (-8.4%)	55,620 (-11.3%)	61,862 (11.2%)	60,623 (-2.0%)
서비스업	104,482 (7.2%)	118,870 (13.8%)	111,450 (-6.2%)	122,015 (9.5%)	131,011 (7.4%)
신입	22,051 (-3.0%)	25,645 (16.3%)	23,917 (-6.7%)	26,060 (9.0%)	25,866 (-0.7%)
제조업	6,092 (-20.1%)	6,409 (5.2%)	6,056 (-5.5%)	9,256 (52.8%)	8,048 (-13.1%)
서비스업	14,927 (6.3%)	18,096 (21.2%)	16,846 (-6.9%)	15,707 (-6.8%)	16,696 (6.3%)
퇴직	203,963 (-3.8%)	208,681 (2.3%)	206,687 (-1.0%)	209,748 (1.5%)	219,786 (4.8%)
제조업	79,774 (-15.9%)	67,858 (-14.9%)	69,860 (3.0%)	67,292 (-3.7%)	66,685 (-0.9%)
서비스업	108,556 (7.4%)	124,141 (14.4%)	121,038 (-2.5%)	124,996 (3.3%)	135,698 (8.6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